

2012. 03 / 04 | 격월로 발행되는 온라인 매거진 제 24호

春

COVER STORY

내 피부의 봄바람, 설레인다 내 봄빛 피부!!

차앤박으로 떠나는 Spring Skin Picnic

HOT CLINIC



내 피부의 봄바람, 설레인다 내 봄빛 피부!!
차앤박으로 떠나는
Spring Skin Picnic

PAGE : 02

편인터뷰



피부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제로 처방!!
일상의 잠깐멈춤,
흥콩여행의 노하우를 알려드려요!

PAGE : 04

줌인



차앤박 모발 클리닉
두피건강,
스타일의 완성이다

PAGE : 06

포스트잇



염증성 여드름과의 이별순간, 스피클링-A
이별은 슬프다.
하지만 모든 이별이 슬픈건 아니다.

PAGE : 08

Dr. 지식인



황사가 부는 시기에는 어떻게 세안하면 좋을까요?
인천점
이지선 피부과전문의

PAGE : 10

CNP NOW



차앤박의 이름으로
우리만의 커뮤니티,
통하는 공간 Cnpclub 런칭

PAGE : 12

차안박으로 떠나는 Spring Skin Picnic 내 피부의 봄바람, 설레인다 내 봄빛 피부!!



3월이면 봄처녀의 발그레한 볼이 생각나는 건 훈훈한 봄바람의 간지럼 때문만은 아니다. 삼라만상의 태동을 알리는 함찬 시작이 대지에서 이루어지듯 우리의 피부 역시 봄바람 앞에서 한없이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설레임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그 설레임을 안고 피부과로 Spring Skin Picnic 을 나온 이들이 눈길을 끈다. 젊은 엄마를 꿈꾸는 초보 학부모가 그 주인공!! 늦은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제력은 가졌지만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아 학부모들 사이에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라는 게 그들의 이야기다.

모르는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지만 생애 최초로 갖는 학부모 모임이나 학교 방문을 앞두고 학부모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젊은 엄마를 꿈꾸는 워너비 피부과 시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

워너비 젊은 엄마 시술

하이드로 - TNT, 보톡스, 쿨젠테라피



하이드로-TNT는 피부톤과 타이팅을 동시에 해결하고 맑고 투명한 피부 유지를 돕는 안티에이징 프로그램으로서 3040 연령대에 게 항노화와 주름개선 및 탄력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여기에 더해 기본적으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모르게 속앓이를 하게 되는 엄마들의 입가 주름에도 효과적이다. 피부 진피층에 자기 몸의 1000배 정도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을 직접 주사하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시술 후 약간의 붉은기와 멍이 들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음압장치를 이용한 리프팅으로 미세 멀티 니들을 사용하여 주사시 통증도 거의 없다. 피부타입 및 연령에 따라 보톡스 및 PRP 등을 히알루론산과 믹스하여 사용이 가능한데 시술후 3~5일 이후 효과가 나타나 인기가. 표정에 따라 생기는 주름을 없애주는 보톡스, 움푹 파인 함몰주름에 효과적인 필러, 처지는 주름에 사용하는 탄력 레이저. 여기에 더해 비타민 C 침투력을 높여 화이트닝 보습케어를 병행하는 쿨젠테라피는 일명 '깜짝 동안시술'로 엄마들 사이에서 알려지고 있다.

Master Of Skin Tone, 봄빛피부 연출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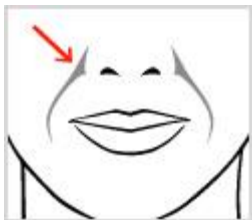
MOST프로그램

영원할 것 같았던 화이트닝에 대한 갈증이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단지 하얀 피부는 메이크업의 기교로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게 되면서 화이트닝에 대한 무료함이 생겨서 일까. 많은 여성들은 화이트닝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피부톤에 주목하고 있는 것. 차앤박피부과의 피부 미인의 고수들은 메이크업의 매직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피부톤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 얼굴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균일하고 생기넘치며 매끄러움을 추구해야 하는 피부톤의 문제는 화이트닝보다 한단계 더 까다롭게 관리가 필요한 케어이기 때문에 차별화되고 있다. 피부톤 해결을 위한 답으로 차앤박은 Most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정한 Master of Skin Tone 의 세계로 초대한다.



Doctor tip

팔자주름만 보이나요? 1Cm 팔자주름의 Start Line을 잡아라!!



팔자 주름은 있으면 같은 나이에 비해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입은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깊은 팔자 주름이 잡히기 쉽다. 또 전반적인 피부 노화가 오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함량이 줄어 탄력이 떨어진 피부는 볼 처짐 증세를 만들면서 팔자 주름을 더욱 불거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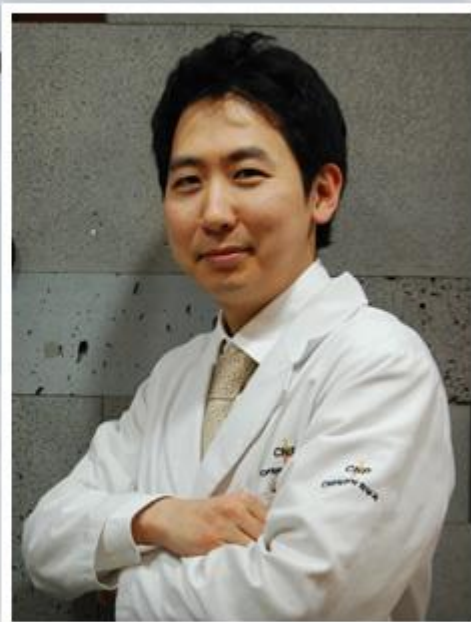
스마일 라인이라고 봐주기엔 얼굴의 노화척도에 피해갈 수 없는 항목이 되어 버린 이상 신경 쓰이는 게 당연지사!! 비교적 깊은 주름이므로 필러로 치료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게 있다.

바로 팔자주름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팔자주름 Start Line** 이다. 보통 코옆에서 시작되는데 원래 코 그림자가 생기는 부위인데다가 팔자주름으로만 생각하기 쉬운 부위다. 문제는 그림자로 대변되는 그 1Cm 가 팔자주름의 유무를 더욱 도드라지게 보이거나 아니면 약화 시켜주거나 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 코의 블랙헤드는 제거하면서 코옆 그림자의 붉은기는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교적 간단한 레이저 시술로 숨어 있는 팔자주름의 Start Line을 잡을 수 있다. 숨은 1Cm 치료로 완벽한 스마일라인을 회복할 수 있다.

피부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제로 처방!! 그만의 여행법 일상의 '잠깐멈춤', 홍콩여행의 노하우를 알려드려요!



모든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시간, 하루 24시간, 1,440시간, 86,400초. 그 누구에게도 단 1초 이상의 시간을 더 주지도, 덜 내주지도 않기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의 활용여부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한없이 남아도는 시간이고, 누구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일 수 있다. 일주일 내내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맞이하는 피부과전문의들의 일상과 휴식시간의 안배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그래서 피부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스트레스 제로를 위한 처방을 받아보았다. 삼성점 이정훈 피부과전문의의 제언이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 피부건강에도 적신호!!



스트레스는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0순위의 요소다. 현대인들의 자기관리 현장을 추적하다보면 앞서 말한 공평한 시간관리에서 성패가 좌우된다.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정훈 피부과전문의가 추천하는 처방은 일상에서의 "잠깐 멈춤"이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왕이면 힐링할 수 있는 자기만의 패턴을 찾는게 중요한데요. 쇼핑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는 일, 운동, 여행 등이죠. 스트레스는 피부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는 잠깐 멈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때면 배낭을 싣다. 여행이라고 하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문물을 접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게 여행의 결론이기 때문에 여독을 풀어야 하는 장기간의 일정보다는 쉴수 있는 가벼운 일정을 선호한다고 귀띔했다.

도시남의 도시탐색여행, 그 반전의 묘미

쇼핑천국으로 홍콩은 화려함으로 대변된다. 명품구매로 연상되는 이러한 선입견들은 젊은층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정훈 원장은 홍콩의 반전 매력으로 길거리 상가와 그만큼의 착한가격이라고 한다. 그 묘미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홍콩의 재래 시장이다. 홍콩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빅토리아 하버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 홍콩섬과 북부의 카오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홍콩섬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홍콩의 고층빌딩의 금융 중심가라면 북부의 카오룽은 일반 서민들의 삶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크고 작은 시장들이 자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골목마다 홍콩 특유의 잔재미를 많이 만날 수 있다. 현지인 친구가 있다는 장점은 바로 여기에서 발현된다. 일상의 pause(잠깐멈춤)을 위한 이정훈 원장의 홍콩 이야기다. “홍콩은 멀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양파를 벗기는 듯한 즐거움이 있어요. 이국적이지만 사람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즉 낯선 곳을 여행함으로써 일상에서의 ‘잠깐 멈춤’이 가능하고 여행객으로서는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죠.”



여행객의 호기심, 고객의 피부를 더욱 천착하게 만들어

삼성점 대기실에서 이정훈 원장을 마주치는 일은 흔하다. 진료실과 레이저실을 오가는 그의 모습이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걸어다니는 피부주치의인 것. 치료가 끝난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 치료후의 느낌을 묻거나 불편사항을 체크하기도 하고 대기중인 고객에게는 먼저 안부를 묻기도 한다. 진료실의 영역을 넘어 자연스럽게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러한 세심한 모습은 여행자의 호기심이 그대로 묻어난다.

“모든 면에서 치유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효과가 배가된다는 게 지론입니다. 스트레스가 무서운 건 그게 형태가 없이 사람을 잠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고객의 피부질환이나 고민은 피부전문의를 만나는 순간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 편안함과 관심을 통해 치유받고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효과를 배가 시키죠. 고객 한명 한명에게 천착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때문입니다.”

매번 같은 여행지를 다녀오면서도 치유받고 즐거움을 선물받고 오는 것처럼 삼성점을 방문하는 고객들 역시 여행지를 가는 설렘으로 피부고민을 pause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피부건강을 위해 기억하자. 잠깐멈춤!!

두피건강, 스타일의 완성이다 차앤박 모발 클리닉

스타일을 이야기할 때 헤어스타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유행에 민감한 부분이지만 대체적으로 7~80% 정도가 된다고 한다. 특히 여자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헤어스타일을 중요도는 모두 공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얼굴형이나 옷차림에 맞는 스타일은 바뀔수 있으나 기본적인 머리술과 머리결 등의 헤어 건강도는 헤어스타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차앤박 브랜드에 모발클리닉은 머리의 피부인 두피 건강은 물론 건강하고 아름다운 헤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모발이식의 경우 남성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들어서는 여성들의 모발이식도 늘어나고 있다. M자 이마 및 헤어라인을 교정하기 위한 모발이식부터 앞머리를 올리고 있어야 하는 스튜어디스나 CEO 등의 직업군들 역시 라인을 잡기 위한 모발이식을 시행한다. 특이한 사례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양약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붓대로 얼굴을 고정시키는데 하루이를 사이에 머리 속 일부가 한웅큼씩 빠지게 된다. 소실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시술도 모발이식으로 해결한다. 시술후 3~4일이 지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위나 크기에 따라 금액도 그리 높지 않아서 스타일 완성을 위해 모발이식에 대한 니즈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남녀노소 탈모는 이제 바로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차앤박 모발클리닉 한일웅 원장은 “남녀 비율이 거의 5:5로 탈모는 국민 공통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환절기에 많이들 찾아오곤 했고, 가을에 문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외부환경이 열악해지고,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탓인지 탈모에 대한 고민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탈모에 대한 정보들이 봇물을 이루다보니 자가처방에 의한 시행착오를 경험하시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정확한 진단에 의한 처방을 받기를 권합니다.”고 조언한다. 탈모인들의 커뮤니티와 그들을 겨냥한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입소문으로 인해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는 것. 그것은 바로 샴푸습관이다. 샴푸하는 시간을 보면 길어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아침 짧은 시간 빠른 속도로 감고 오기 나오기 때문에 행군을 여유롭게 할 시간이 없다는 것. 이런 이유에서 저녁에 느긋하고 샴푸하고 행군에 특히 신경 쓰라고 조언했다.

현대인들의 산물 중에 하나가 탈모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탈모에 대한 고민은 연령, 직업, 성별을 초월하고 있다. 통계의 숫자놀음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나열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로 많은 사람들이 탈모에 대한 고민을 한다. 그 고민의 짐을 풀어 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차앤박 모발클리닉이다. 모발클리닉을 통해 헤어에 대한 모든 고민을 털어 놓으라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한일웅 원장!! 헤어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면 스타일의 완성을 위한 노크를 권하는 바이다.

한일웅 원장이 제안하는 탈모 예방법

- ① 샴푸하기 전 브러시로 머리를 빗는다.
- ② 젤, 무스, 스프레이 등의 헤어제품은 제거하고 잠자리에 든다.
- ③ 퍼머나 염색은 너무 자주하지 않는다.
- ④ 머리를 감은 후에는 꼭 잘 말리도록 한다.
- ⑤ 평소 몸의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 ⑥ 두피 마사지를 해준다.

두피 마사지 방법

- ① 먼저 어깨나 목덜미의 뻣근함이 사라지도록 목뺨부분에서 머리위쪽으로 양 손끝을 이용하여 꼭꼭 눌러준다.
- ②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두피 전체를 꼬집듯이 혹은 튕기듯이 지긋이 눌러준다.
- ③ 손바닥 전체를 이용하여 두피 전체를 마사지하듯이 비벼준다.
- ④ 주먹을 가볍게 쥐 상태에서 머리를 두드리듯이 가볍게 때려준다.

두피 건강 수호자, 천직이죠!! 이연희 실장



모발클리닉을 방문할 때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이연희 실장.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의 두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7~8년 전만 해도 두피건강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던 시기였어요. 최근에는 대학에 두피 관련한 전공학과도 생기고, 많은 교육기관도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죠.” 이연희 실장은 꽃꽂이 강사로 자리를 잡아가던 중에 트리콜로지스트를 접했다. 미용분야에 관심이 있던 그가 첫 강의를 통해 두피 및 모발의 문제점을 두피생리학을 기초로 그 원인을 제시하고 케어하는 방안을 안내하는데 바로 매료되었다고 한다. 사실 트리콜로지스트는 두피타입별로 관리, 마사지, 세정하고 나아가 모발 및 두피의 생리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두피, 모발, 탈모전문가로서 보건과 미용을 접목한 21세기 새로운 유망직종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뇌구조와 세포, 다양한 호르몬 등의 천착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연희 실장은 그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의사가 아닌 상태에서 과학적으로 관리에 접근하는 방식이 무엇보다 매력 있었어요. 그냥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전문분야였던 셈이죠. 초창기 전문가이기 보다 서비스로만 인식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은 당당한 전문분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 두피 건강을 수호하는 그의 직업에 자긍심을 갖는다는 이연희 실장, 천직을 일찍 발견한 그의 열정이 아름다웠다.

이별은 슬프다. 하지만 모든 이별이 슬픈건 아니다. 염증성 여드름과의 이별순간, 스피쿨링 - A

이 체험기는 중학교때부터 계속된 염증성 여드름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있는 대학생 정준호 씨의 이야기다. 중학교때 두피에 하나둘 생겨 나던 여드름이 고등학교때는 얼굴에서 자리잡아 3년을 괴롭히더니 대학입학후에는 목부위를 점령하고 나섰다고 한다. 군제대 후에는 더욱 심해졌는데 염증으로 인해 목까지 올라오는 옷은 거의 입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는 그가 차앤박피부과의 스피쿨링-A의 1회 치료만으로 지긋 지긋한 여드름과의 이별을 고할 수 있겠노라고 미소 짓는 훈훈한 이야기다.



대학을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군대 다녀오니 졸업이 코앞이다. 아직 일년 대학에서의 낭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노곤한 졸업반이다. 준비할 것은 많은데 그 중 중학교 이후 나를 괴롭히는 여드름과의 결전 역시 목록치 않다. 우연한 기회에 차앤박피부과를 방문하게 됐다. 6년전 여드름 치료를 위해 피부과를 방문한 적도 있었고 한참 유행했던 도라셀레이저를 통해 치료를 했던 경험도 있는지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 치료가 그 치루이고, 무엇보다 목에 있는 이 염증성 여드름은 답이 없다 나를 절로 내렸기 때문이다. 달당의 역시 목에 있는 여드름은 치료기간도 오래 걸리고 효과도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보부터 전했다. '뭐 어차피 크게 기대하지 않았으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밖에!!

스피쿨링 - A, 너는 누구니?

내가 치료받는 여드름 프로그램은 스피쿨링-A라고 한다. 스피쿨이라는 바늘모양의 천연물질에 여드름에 효과 있는 물질이 내 피부 속에 들어가 과도한 피지분비, 염증완화 등으로 72시간동안 활동한다고 한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기특한 스피쿨들이 내 피부 속에서 열심히 활동한다고 생각하니 좀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저 뽀족한 것들이 내 피부에 들어간다고? 라는 생각에 치료 전부터 마구 아파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달당의가 치료과정이 좀 아프다라고 하니 정말 끝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세안후 치료실에 누워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딥클렌징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여드름 압출(결과적으로 이 치료 과정이 제일 아팠다)에 좀 길다 싶은 전치료가 있고, 스피쿨링-A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원장님의 손길에 생각보다는 부드러웠고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다. 이어지는 후관리는 피부 진정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염증이 맑아 붉은기가 심하니 보습케어 1회 및 붉은기 치료를 위한 브이빔 레이저 치료를 권유 받았다. 그렇게 1시간 가량의 치료가 끝나고 났을때의 기분은 '생각보다 아프지 않다. 뭔가 체계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다.

삼일후 보습케어 + 붉은기 치료

치료후 하루정도 지났을 때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느낌이 편안했다. 이틀이 지나니 감자껍질 같은 각질이 마구마구 일어났다. 최대한 손을 대지 않았지만 눈에 띄는 각질의 양상이 생각보다는 살벌했다. 보습케어를 받기 위해 삼일후 방문한 피부과에서는 보습케어로 진행된다고 한다. 스피쿨링-A 프로그램만 빠진 전후관리가 진행되는듯한 느낌이었는데 보습과 재생을 위한 과정이라고 했다. 또한 붉은 염증으로 인해 오돌토돌한 부위에 염증주사를 통해 염증을 완화해주었으며 울긋불긋한 붉은기 치료를 위해 브이빔레이저를 치료받았다. 마취를 하지 않아 놀랐는데 견딜만한 치료였다.

열흘후, 놀랍도다 매끄러워진 피부!!

세번의 피부과 방문이었지만 사실 1회 시술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열흘만에 울퉁불퉁하던 내피부가 매우 매끄러워졌다. 사진상으로는 그 매끄러움을 담아 낼 수 없지만 목부분에서 걸리던 그 불쾌한 느낌이 사라졌다. 염증으로 항상 고생이었던 목으로 인해 옷을 입을때면 항상 고민이 됐었다. 여드름 커밍아웃을 할것인가 스스로 불편하다라도 목을 가릴 것인가 하고 말이다. 그런데 놀랍도록 매끄러진 피부를 보며 자신감마저 생겼다. 고백하건데 프락셀레이저로 치료를 받은적이 있는데 5회 받은 후의 치료효과와 다르지 않다. **모든 이별은 슬프다. 하지만 여드름과의 이별 앞에서는 환영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순간을 포착한 것만 같아 너무 기쁘다. 여드름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할 지금, 나의 미래도 밝음이라 생각해 본다. 고마워요~~스피쿨링-A, 그리고 차안박피부과!**

치료 전후사진 10일 후

BEFORE



AFTER



오른쪽 턱 밑

BEFORE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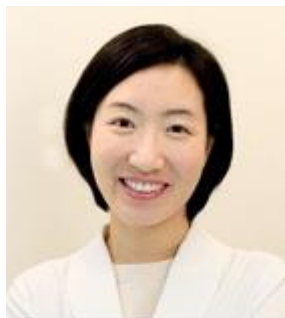


왼쪽 턱 밑

황사가 부는 시기에는 어떻게 세안하면 좋을까요? 인천점 이지선 피부과전문의

Q

바야흐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봄의 불청객인 황사가 걱정됩니다.
황사가 부는 시기에는 세안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세안하면 좋을까요?



이지선 피부과전문의

올 봄은 3월까지 추위가 잦아 다소 늦게 시작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다. 황사는 평년보다 빠른 3월에 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피부질환으로는 피부알러지나 아토피성피부염이 잦아질 수 있는데 심하다면 피부과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권한다. 알려졌듯이 황사의 미세 먼지는 철, 알루미늄, 규소 등 황토 성분이므로 원래는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 중금속이나 공해물질이 함께 섞여 있으므로 피부에 자극적이다. 또한 워낙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가벼운 세안으로는 잘 씻겨 나가지 않으므로 미지근한 물로 꼼꼼히 세안하도록 한다.

피부는 PH 4.5~6.5 정도의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한 상태인데, 세정력이 강한 비누일수록 알칼리성이다. 황사를 깨끗이 제거한다고 이런 알칼리성 비누를 계속 쓸 경우 피부보호막 형성에 필수적인 피지까지 제거해 오히려 민감성 피부를 만든다. 따라서 보약이 되는 클렌징의 첫걸음은 제품 선택에 있다. 일반적으로 중성이나 약산성을 띠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약알칼리성을 띠는 비누보다 좋은데, 사용설명서에 'PH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것을 고른다.

또한,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피지 분비량 또한 증가하므로 황사 먼지가 피지와 엉켜 모공에 달라붙어 모공이 막혀 뾰루지와 같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모공 케어에 신경을 써야 한다. 모공 청소를 위해 토너를 이용하면 좋은데, 특히 모공 청소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살리실릭산이 함유된 토너를 세안 후에 퍼프에 묻혀 가볍게 닦아주듯 이용하면 된다.

이처럼 깨끗하게 세안을 한다고 해서 황사로 인한 피부 트러블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잦은 샤워나 세안은 피부를 건조하고 민감하게 만들므로 보습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물기를 닦자마자 바로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도록 한다.



기본적인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은 피부의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으므로 황사철에는 스킨케어나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맨얼굴로 외출하는 것을 자제한다. 안티-폴루션(Anti-Pollution) 기능의 BB크림을 발라주는 것도 좋다. 안티-폴루션 기능이란 공해방지 기능으로 피부에 얇은 막을 씌워 공기 중의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여 자극을 주는 것을 막는 제품이다. 이 같은 제품을 황사철에 이용하면 피부 보호에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황사철 날아다니던 먼지는 피부의 유분기나 끈적이는 메이크업 제품에 의해 더욱 더 피부에 잘 달라붙을 수 있으니, 가능한 매트한 피부 상태로 외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물질이 달라붙기 쉬운 립스틱이나 크림 섀도우 등 끈적이는 화장품은 사용을 자제한다.

아울러 스킨케어는 끈적이지 않으면서 보습력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수분 에센스 타입으로 발라 흡수를 잘 시키고, 외출 30분 전 자외선차단제(SPF15이상,PA++/방사기능)를 꼼꼼히 발라준다.

황사철에는 피부가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스크나 팩, 스크럽 같은 피부에 물리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딥클렌징 제품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이 같은 종류의 제품들은 대부분 피지와 모공의 노폐물을 제거해 주면서 딥클렌징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피부 보호에 필요한 피지 보호막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환절기나 황사철의 건조한 피부는 건조함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황사철 깨끗한 피부 관리를 위해 딥클렌징 제품을 사용하기 원한다면 주1회 정도가 적당하며, 따가움 등의 피부 자극이 느껴진다면 바로 세안하고 일정 기간 사용을 중지한다.

이처럼 황사철에는 피부가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딥클렌징 제품 보다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순한 저자극 이중 세안과 충분한 보습 및 진정 작용이 있는 보습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차앤박의 이름으로 우리만의 커뮤니티, 通하는 공간 cnpclub 런칭

차앤박의 이름으로 ❶ cnpclub launching

通하는 공간, 우리만의 커뮤니티 선보이다

차앤박이라는 배를 타고 인터넷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차앤박피부와 화장품의 메인 홈페이지다. 하지만 대고객을 상대로 하는 친절가이드 공간이다 보니 내부고객인 직원들에게는 인색했던 게 사실이다. 물론 대고객 중의 한 명으로 존중받을 수는 있었지만 조금은 더 끈끈하고, 우리들끼리의 수다를 질편하게 풀 수 있는 공간으로는 뭔가 조심스러웠던 것.

cnpclub은 전 직원이 '차앤박'이라는 브랜드내에서 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차앤박'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이들을 위한 cnpclub을 런칭하게 된 것. 이 곳에서는 '차앤박'이라는 자부심을 잠시라도 공유했던 이들이라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차앤박의 최신 소식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우리들만의 진정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재미와 흥미를 만들어 냈다.

차앤박화장품을 직원가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카테고리를 비롯해 영화/봉사/사진 동아리를 비롯해 독서클럽을 마련해 팀워크를 다지고 있다. 특히 인기가 있는 매일매일 한줄 소식은 간단하게 글을 남기며 안부를 나눌 수 있는 미니소식란이다. 중고장터는 물론 차앤박내 재취업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차앤박의 이름으로 ① 한국사보협회보 소개

고객을 향한 서툰지만 진솔한 프로포즈, 차앤박스토리

한국사보협회는 인쇄사보, 전자사보, 방송, 사사, 웹사이트, 홍보물, 광고 및 공익 캠페인, 블로그 등 산업언론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비즈니스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제 388호)소속의 사단법인이다. 지난 1988년에 창립되어 20여년간 연료를 쌓아오면서 20,000여명의 사보기자들이 3,000종 이상의 정기간행물(웹진)등을 통해 매월 8,000만부를 발행하는 규모로 성장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과 조직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협회 인 것. 바로 이곳에서 발행하고 있는 PR커뮤니케이션정보지 월간 NETWORK 에 차앤박피부와격월간 웹진 차앤박스토리가 소개됐다.

매월 1만부가 발행되는 이 오프라인 잡지는 주요배포처로 사보협회 회원사, 기업체 홍보실 및 사보담당 기자, 마케팅광고관련부서, 행정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보실, 대학 및 관련학과, 학계, 관계기관 등이다. 차앤박스토리의 방문자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